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❶ 안세고(安世高)

▶김진무 교수는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산법문(東山法門)과 그 선사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중국 남경대학 철학과에서 〈불학과 현학의 관계연구〉(中文)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중국불교거사들〉, 〈중국불교사상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역), 〈불교와 유학〉 등이 있다.



안세고의 역경, 중국불교 참다운 '시작'

석존(釋尊)의 정각(正覺)으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사상적 경향과 문화적 풍토가 다른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국 본토에 형성된 사상문화와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적 변용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용은 여러 측면에서 인도나 서역의 불교와는 상당한 차별상이 나타난다. 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비불교(非佛敎)'라고 비판되기도 하며, 특히 조사선은 노장(老莊)사상에 입각한 불교의 아류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불교와 중국선의 사상사를 전공으로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오히려 중국불교와 조사선을 깊게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 단견이라고 평가하며, 그와 반대로 석존께서 시설(施設)하신 교의(敎義)가 중국에 와서야 비로소 참답게 완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으로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歸命)하여 중국의 불교를 살아있게 만든 역대 종장(宗匠)들의 행적과 사상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불교와 조사선의 참다운 진제(眞諦)를 논하여 석존의 혜명(慧命)이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에 불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서한(西漢)의 무제(武帝, 재위 B.C141~B.C87)에 의하여 서역과의 교통로, 이른바 실크로드가 개척되면서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서역로가 개통된 이후 수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당시 서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불교의 문화와 교의(敎義)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에 최초로 기록되는 것은 동한(東漢) 명제(明帝, 재위 57~75)시기의 초왕(楚王) 영(英)의 기사[영평 8년(65)]이고, 본격적인 불교의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환제(桓帝, 재위 146~167)의 건화 2년(148)에 안세고(安世高)에게 경전을 번역하라고 명한 이후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불교가 알려진 이후 최소한 15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역사 기록에 등장하고, 또한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환제시기에 갑자기 국가적인 사업으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지 200여 년이 지난 이후인 환제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불교가 주목받게 되었고, 국가적 사업으로 역경을 했을까?

중국은 황하(黃河)와 양자강(楊子江)과 같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으로 인하여 농경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문화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상고시대로부터 척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변의 소수민족들의 침탈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선진시기로부터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랑캐[夷]'의 저급한 문화가 '중국민족[華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한다는 '이하지방(夷夏之防)'의 의식이고, 이로부터 점차 이하론(夷夏論)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사상적으로 뛰어난 불교가 전래되었어도 화하(華夏)의 것이 아니기에 쉽게 수용될 수 없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은 〈주역(周易)〉의 '풍지관괘(風地觀卦)'에서 "성인(聖人)은 신묘한 도[神道]로써 교(敎)를 세우니, 천하가 그를 따른다.[聖人以神道設敎, 而天下服矣]"라는 말과 같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인의 '신묘한 도'를 통치이념으로 설정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열국이 각축을 벌이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법가(法家)를 채택한 진(秦)이 비록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법가 사상의 지나친 적용으로 실패하였고, 그 뒤를 이은 서한(西漢)은 도가(道家)의 황로학(黃老學)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지만, 결국 한계를 노정하여 무제(武帝)에 의하여 유가(儒家)의 사상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유가의 통치이념도 제국을 통치하는데 실패하게 되어 서한은 망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서한을 계승한 동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황실에서는 새로운 통치이념의 수립을 위하여 이미 100여 년 전에 전래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뿌리 깊은 '이하론'에 기인한 민족적 저항감으로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후한서(後漢書)〉에 "초왕은 황로(黃老)의 미언(微言)을 읽고, 다시 부도(浮屠: 佛)를 숭상하여 사당에 모셔 신(神)과 함께 3개월을 결재(潔齋)하기를 맹세하였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의 사서(史書)에 불교와 도가에서 중시하는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와 융합하려는 다양한 기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이하론'의 저항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황실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환제도 역시 '황로'와 '부도'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에 따라 불교가 통치에 도움이 된다는 상소가 올라오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본격적인 역경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불교경전 국가적 한역 작업
황권 차원 번역맡은 안세고
태자지위 버리고 출가 수행

이렇게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비로소 중국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황권으로부터 최초로 번역을 맡은 이가 바로 안세고이다.

안세고는 다양한 전적에 그 이름이 언급되지만, 양(梁) 대 때 혜교(慧皎)가 찬술한 〈고승전〉 권1과 승우(僧祐)가 찬술한 〈출삼장기집〉 권13에 온전한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고(世高)'는 자(字), 즉 아명이고, 본명은 청(淸)이며, 안식국(安息國)의 국왕과 정후(正后)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에 따라 태자(太子)의 지위에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오행(五行)과 의방(醫方) 등의 다양한 분야에 뛰어났으며, 짐승들이나 새들의 소리에도 통달하여 서로 소통하였다고 한다. 또한 외국의 전적들에도 능통하였다고 하니, 어학에도 상당히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왕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불법에서 논하는 고(苦)와 공(空)을 깊게 사유하여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에는 모든 경장(經藏)에 밝았지만, 특히 아비담(阿毘曇) 교학과 선경(禪經)에 뛰어났다.

그 후에 서역의 여러 나라를 유행하며 법을 펴다가 환제가 즉위한 다음해인 건화 2년(148)에 낙양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권에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당시에 서역으로부터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논하겠지만, 지루가참(支婁迦讖)은 안세고보다도 1년 먼저 낙양에 도착한 것과 같이 이미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불교를 신앙하던 이들도 존재했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안세고는 낙양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전의 번역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영제(靈帝, 재위 168~189)시기에도 번역을 지속하였지만, 그 시기에 관중(關中)과 낙양에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면서 중지하게 되었다. 바로 초기 도교도들에 의한 황건적(黃巾賊)의 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교도들의 반란은 불교를 통해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던 동한 황실을 좌절케 하였지만, 이후 남북조와 수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승전〉과 〈출삼장기집〉의 전기에서는 안세고가 난을 피하여 강남으로 향했으며, 계속 남하하여 광주(廣州)에 이르러 시장에서 싸움판을 지나다가 잘못 맞아 입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황건적의 난으로 인하여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교도들에 의하여 화를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해보지만,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들은 〈고승전〉에서는 39부라고 하지만, 양(梁)대까지 번역된 불전을 모두 종합한 〈출삼장기집〉의 '신집찬출경율론록(新集撰出經律論錄)'에 따르면 34부 40권이라고 하며, 진(晋) 대의 도안(道安)이 편찬한 〈중경목록(衆經目錄)〉에서는 35부 41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경전은 아함부에 속하는 17부와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 2권, 〈음지입경(陰持入經)〉 2권, 〈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 1권, 〈도지경(道地經)〉 1권, 〈아비담오법경(阿毘曇五法經)〉 1권 등이다.

안세고의 역경은 그의 전기에 언급되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 최초의 번역은 아니지만, 황권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에 의한 번역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중토(中土)의 첫 번째 역경가로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불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비로소 중국불교의 참다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동한 시기에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에 따라 불교가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들은 주로 아비다르마에서 논하는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경전들이다. 특히 〈안반수의경〉은 당시에 가장 유행하였으며, 이 경전에서 논하는 '안반수의'는 바로 '수식관(數息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한다. 또한 〈음지입경〉에서는 사제(四諦), 오온(五蘊), 십이연기(十二緣起),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등의 법을 설하여 선정으로 번뇌를 퇴치함을 제창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안세고의 역경으로부터 유행한 불법을 '선수학(禪數學)'이라고 칭한다. 동진(東晋)의 명승 도안(道安)은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을 높이 평가하여 서문을 쓰는데, 〈음지입경〉의 서문에서 안세고의 역경을 "오직 선관(禪觀)을 펴는 데 힘썼다."라고 하고 있고, 다시 〈안반수의경〉 서문에서 "옛 학문을 널리 배웠고, 특히 아비담(阿毘曇)에 뛰어나 그 역출(譯出)한 경전의 선수(禪數)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하며, 〈십이문경〉 서문에서는 "안세고는 선수학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세고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불교를 유행하게 하였으며, 그의 역경으로부터 유행한 선수학은 이후 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불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비록 수(隋)·당(唐) 대에 이르러 안세고 계통은 거의 사라져 명맥조차 남지 않게 되지만, 그의 역경으로부터 비롯된 선수학은 이후 중국불교가 최종적으로 조사선(祖師禪)으로 귀숙(歸宿)되는 초기화를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한불교 법보조계종 종 정 **향운**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사)함께 가는 길 이사장 **혜상**
일산 자비원 원장 **도일**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해동자비원 원장 **만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